

공영민 고흥군수, 미래 우주허브도시 도약 프랑스 방문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와 글로벌 협업체계 구축 약속 유럽 최대 우주박물관 시찰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해답 찾아

고흥군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대한민국 우주강국 실현과 미래 우주 허브도시 건설을 위해 유럽 우주 산업의 선두 주자인 프랑스를 찾아 글로벌 우주산업 벤치마킹에 나섰다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한 전남도·고흥군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했으며, 지난 13일 정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지대* 구축* 비전 실현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다.

우주산업의 중심에 있는 프랑스를 방문해 우주산업의 현주소와 산업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2031년까지 고흥군에 1조 6천억 원이 투자되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향 모색과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콘텐트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다.

벤치마킹단은 이번 일정 동안 에어

로스코피아, CNES 툴루즈센터, 시티 오브스페이스, 스테이션-F 등을 차례로 방문해 세계적인 우주산업 선진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벤치마킹단은 현지 시각 3일에 먼저 툴루즈 에어로스코피아와 CNES 툴루즈센터를 방문해 우주항공 전시·체험시설 시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3년에 개관한 에어로스코피아는 연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우주항공 박물관으로, 특히 유럽의 대표적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 그룹과 연계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주항공 테마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방문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는 유럽우주국(ESA)의 핵심으로 프랑스 우주정책 계획 및 산업화를 전담하는 등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연구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며 남미 기아나(프랑스령)

에 발사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CNES의 Jean-Claude Souyris 부국장장과 Anne Thieser 국제 교류 담당관이 면담에 참석했으며, 프랑스 우주산업 성장에 충주적인 역할을 하는 CNES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우주산업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고흥군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정립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주프랑스 대사관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고흥군과 CNES 간 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글로벌 협업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4일에는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우주박물관인 툴루즈 시티오브스페이스를 찾았다. 1997년 개관한 시티오브스페이스는 총면적 35,000㎡로 우주정거장 미르, 아리안5 로켓, 소유즈 우



주선 모형 등 전시시설과 다양한 콘텐츠의 체험시설을 갖춰 한해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명실상부 유럽 최대 우주박물관이다.

공영민 군수는 이날 각종 전시시설과 플래네티움, 루나익스플로라, 아이맥스 체험·상영관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 고흥군의 우주관련 견학 교육체험 시설인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어 5일에는 파리로 발길을 옮겨 르브르제 항공우주박물관과 유럽의 실리온벨라라 불리는 스타트업 인

큐베이터인 '스테이션 F'를 방문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파리 지소장의 안내로 시설 시찰과 기업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내에 스테이션 F와 같은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툴루즈의 집적화된 우주항공 산업과 민관협력, 인력 수급 등을 직접 현장에서 접하면서 고흥이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는데 좋은 모범이 되었다"고 전했다.

/고흥=신용원 기자

광양, 온앤오프 브이로그 공모전 개최

시민 일상·휴식 함께 공유... 내달 7~12일까지

광양시는 시민의 일상과 휴식을 함께 공유하는 '2024 온앤오프 브이로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광양시민들의 일상을 영상에 담아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관광 등 광양의 매력과 다채로운 모습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광양시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인(팀) 1편으로 출품이 제한된다. 일, 공부, 육아 등 분야에 얽매는 모습(ON)과 맛집 방문, 관광, 취미생활 등 광양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OFF)을 10분 이내의 영상에 담으면 된다.

신청은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영상의 품질, 해상도 등 공모문에 표기된 영상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된 영상과 지원서를 이메일(gwang.angsi@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광양시 홍보소통실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영상을 대상으로 영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주제 적합성, 독창성, 활용성, 대중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수상작은 6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광양=조준익 기자

보성 '전남형 만원 주택 공모사업' 선정 쾌거

인구소멸기금 150억 원 투입 '아파트 50호' 조성

보성군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남도가 공모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를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가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청년은 최장 6년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별교읍 회정리에 아파트 50호가 건립될 전망이다. 조성 비용은 전라남도 인구소멸기금 150억 원으로 군비 부담 없이 전액 도비로 추진된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이며, 세부 자격 기준은 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대상부지 인근에 2026년 준공 예정인 별교문화복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으로 수영장, 영화관, 도서관을 비롯한 체육·문화·보육시설이 확보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만원주택의 신속하고 안전한 건립을 위해 사업부지 최적화 및 기반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전남도, 전남개발공사와 입주자 자격 기준 및 선정 방법 등 세부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올 1월에 착공한 별교문화복합센터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남형 만원주택을 조성하겠다"며 "행복 전남에 발맞춰 청년을 위한 문화, 복지,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순천미식대첩 '우리에게 김치사랑' 참가자 모집

오는 16일까지 접수... 21일 경연대회 개최

순천시는 오는 16일까지 '우리에게 김치사랑! 순천미식대첩'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4 순천미식주간' 프로그램 중 하나로 순천의 다양한 맛집이 가지고 있는 음식자원을 국가지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규모는 10팀으로 순천시에서 식당을 영입 중인 운영자가 대상이며 선착순에 의해 참가자가 확정된다. 수상자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2024 순천미식주간' 행사장 내에서 현장 경연을 통해 결정된다.

참가 방법은 순천시청 홈페이지(www.suncheon.go.kr)에서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참가신청서, 조리법 등을 작성한 후 오는 16일까지 순천시 농식품유통과(moons16@korea.kr)로 메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순천의 다양한 식당 운영자들이 만드는 김치를 관광객에게 선보여 외식업소 운영자와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미식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천=조준익 기자

곡성 6개 기업, 총 1억250만원 공모 사업 선정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전남형 예비마을기업 기업

곡성군은 전라남도에서 공모로 추진한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및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에 지역내 6개 기업이 선정됨에 따라 1억 2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전남도 내 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 제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어 자립할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의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를 해결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곡성군은 사업개발비 3개소 5,400만원, 시설

장비 2개소 2850만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2000만원 등 총 6개 기업이 선정되어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과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후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곡성=홍경백 기자

곡성, 친환경 법씨 온탕소독장 운영

다음달 17일까지... 고품질 쌀 생산 필수과정

곡성군이 고품질 쌀 생산의 필수과정인 법씨 온탕소독을 지원한다.

곡성군은 농업기술센터와 10개 면 농기계업대사업소에 '친환경 법씨 온탕 소독장'을 설치하고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달동안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법씨 온탕소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벼 카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벼일선충 등 종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농민들은 탈망기 또는 소금물 정선 등을 통해 충실한 법씨를 고른 뒤 건조시켜야 한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벼 종자를 65도 물에 7분간 담근 후 건져내 찬물에 2~30분간 충분히 식히면 완료

된다.

소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씨 적정량(10kg 이하)을 그물망에 담아 물 순환이 잘 되도록 하고 소독시간 동안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 재배의 경우 온탕소독 후 추가로 석회유황(22%)을 50배로 희석해 24시간 침지처리하면 카다리병 방제 효과를 99%이상 높일 수 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법씨 온탕소독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필수과정인 만큼 쌀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농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인근에 소독장을 개설했다"며 "온탕 소독을 통해 쌀의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홍경백 기자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육군 제7391-3부대, 업무협약

마음 챙김·정신건강 증진

순천시는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가 육군 제7391-3부대와 군 장병 및 군무원의 마음 챙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순천청년마음센터는 군 장병 대상 통합적 정신건강증진



협약에 따라 순천청년마음센터는 군 장병 대상 통합적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증진교육을 비롯한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 상담 제공으로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돕는다.

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군장병에게 대인관계 어려움, 우울, 스트레스 관리 등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준익 기자

광양시,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일반 가구는 주택 철거·처리비는 1당당 최대 700만원, 지붕 개량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200㎡ 이하의 면적에 대해 지원하며, 한센인 페붕 개량비는 우선 지원 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전액 지원되고 지붕 개량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광양=조준익 기자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주택 지붕 개량비는 우선 지원 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전액 지원되고 지붕 개량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광양=조준익 기자

보성읍 우리 동네 복지공동체 주민 생활불편 해소 '구슬땀'

보성군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보성읍 우리 동네 복지공동체가 취약계층 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보성읍 복지공동체 원과 희망드림협의체, 자원봉사회, 보성군 119생활안전순찰대, 마을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총동원됐다.

봉사자들은 힘을 합쳐 오랫동안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도배, 장판 교체, 간이화장실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등 주택 내외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보성읍 복지공동체 임원서대장은 "오늘 참여해 주신 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보성읍장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봉사해주시는 공동체원 및 자원봉사자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강화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보성읍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눈길

국립순천대학교가 위탁운영 중인 순천시가족센터에서는 취·창업 준비 중인 결혼이민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일을 잡아라'를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올 3월부터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고객 응대 서비스 교육 및 의사소통, 이미지메이킹 등 사전 기본소양교육(3월)과 컴퓨터 및 운전면허 자격과정(4월)을 이수한 결혼이민자에게는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직업훈련과정은 '통·번역 과정반(상반기)'과 '도배기능사 자격반(하반기)'이 운영된다.

박애리 센터장(순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모의 면접까지 취업 전반의 과정을 준비하고, 스스로 내·외부의 강점을 파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취·창업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직업훈련·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 착한가격업소 15개소 신규 지정

광양시는 2024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확대 발굴과 착한 매물이 선점(善占) 사업을 통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15곳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업소별 품목 가격이 지역 가격 평균 이하이고, 위생 청결 기준 등을 충족하는 업소 중 평가를 통해 지정된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 결과 총 22개 업체가 신규 신청을 했으며, 시는 현지 실사 및 심사를 거쳐 적합한 15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했다.

광양시 착한가격업소는 한식, 일식, 중식 등 외식업 40곳, 이·미용업 및 세탁업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14곳 등 총 54곳이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장바구니와 같은 소모품 꾸러미를 지원하며, 광양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